

# 해남고구마·배추 지역성장동력 육성

### 군, 생산단지 육성 등 국고지원 건의 2025년까지 297억여원 투입

### 생산·유통·가공 26개사업 추진 계획

해남군이 지역대표 특산물인 해남고구마와 해남 배추를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 등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를 방문, 고구마와 배추의 지역특산물 육성 등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부처 예산안 수립시기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남군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장기 성장동력이 될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 4월에 이어 2주만에 농식품부를 또다시 방문,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과 고구마 유량증

순 생산기반 구축 등 해남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해남고구마와 해남배추에 대한 식품 산업화는 지난해 말 명 군수가 전략사업으로 육성을 지시하면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그를 위해 고구마연구소 설립과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군 대표 특산물 해남고구마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남고구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97억여원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가공에 이르는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해남고구마 품질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해남고구마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 연구·보급할 해남고구마 연구소 설립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해남 고구마의 명품화를 이끌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해남군 김치전문생산단지는 2024년까지 원재

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군은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국고 건의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광주광역시 세계김치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김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R&D센터 유치 등을 협의했다.

해남군은 내년 김치 가공산업 전략적 육성 및 수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4억원 중 17억여원에 대한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은 우리나라 최대 배추 생산지로 김치 중추국의 위상 회복과 김치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기자 노트

### 시내버스 휴업, 시민 향한 갑질?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오늘은 7월 1일부터 목포에선 시내 버스를 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해오던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목포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휴업이 이루어질 경우 대중교통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공익상 필요성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휴업신청을 4일 반려했다.

하지만 휴업신청 반려에도 버스업체의 휴업은 강행될 공산이 커 특단의 교통정책을 세워야 하는 목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포시, 시의회, 업체 등 3자는 지난 4일 버스업체 입장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버스업체가 적자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휴업신청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굵직한 시선속에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예상했다는 듯 업체측이 거세게 항변하며 퇴장하면서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

백동규 시의원은 "시민을 불모로 목포시와 사전 협상이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 신청한 버스업체의 발상은 시민의 발을 묶겠다는 협박이다. 이한철 대표는 공개 사과와 함께 휴업신청을 즉각 철회하세요"라며 버스업체 대표를 향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협박이 아니라니, 더이상 협의

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며 협박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지듯 목소리를 높였다. 황급히 회의를 빠져나가는 버스업체 관계자들의 뒷모습에는 맘대로 해보라는 배짱이 묻어났다.

휴업신청을 낸 버스업체 태워여객과 유진운수는 현재 목포상공회의소 이한철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966년 5월 창립해 56년 동안 목포시의 시내버스를 독점하면서 목포시민의 발을 자처해왔다.

업체는 시가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 등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지원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를 결렬되자 시는 입장문을 통해 "대책마련시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휴업신청을 반려했다"면서 "공공의 성격이 강한 버스업체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만간 가칭 '목포시내버스 운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휴업, 공익성을 저버린 업체의 결정에 비난 여론이 불붙을 이루고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pjb@kwangju.co.kr

# 무안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 힐링공간 탈바꿈

### 백련카페·관광객 쉼터 오픈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안의 명품 휴양시설인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이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무안군은 일로읍 회산백련지 내 수상유리온실을 백련카페와 관광객 쉼터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회산백련지 인근으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영산강 강변도로가 개통되면서 광주, 나주, 목포 등 타지역에서 방문객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상유리온실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수상유리온실은 그 동안 수석전지와 아열대식물원으로 사용돼 왔으나 리모델링을 통해 1층은 카페와 화장실, 2층은 식물원 쉼터로 조성됐다.

1층 카페 내·외부는 연꽃벽화와 안락소파, 조명과 멋스런 가구가 어우러진 아늑한 분위기 속에 숲의 나무를 연상케 하는 인조목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2층은 열대식물 사이사이에 6곳의 쉼터가 조성됐으며, 쉼터에는 특색 있는 탁자와 의자가 배치돼 관광객들이 편하게 앉아 창 너머로 보이는 연꽃과 연잎 물결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카페 오픈에 이어 관광객들에게 무안의 맛을 전파하기 위한 향토음식관을 추후 개관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카페와 향토음식관 오픈으로 맛을 더하고 장미와 수국, 웨이브 페츰니아 등 다양한 꽃과 수목을 심어 백련지를 관광객들이 언제나 즐겨찾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백련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은 일로읍 회산백련지 내 수상유리온실을 백련카페와 관광객 쉼터로 단장해 오픈했다. 새롭게 꾸민 회산백련지 내 수상유리온실. <무안군 제공>

### 영광군, 여름 집중호우 대비 도로정비 나서

영광군이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불철 도로정비에 적극 나선다.

영광군은 겨울철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도로정비에 나섰다 5일 밝혔다.

정비가 시급한 도로 사면과 포장 등을 우선 정비하고 정비대상 도로 260km(위임국도 2개노선 26km, 지방도 5개 노선 71km와 군도 23개 노선 163km)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런 도로정비는 도로포장 정비, 비탈면 정비, 교량 등 시설물 기능유지, 배수시설 퇴적토정비, 도로표지 정비, 도로청결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특히, 지난 겨울철 한파와 해빙기로 인한 도로포트홀 보수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를 중점적으로 교통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 진도군, 5억 들여 과학영농실증시험 추진

진도군이 5억원을 들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실증시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과학영농실증 시범포를 조성해 영농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나섰다.

진도 특화품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 교육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학생 진로체험과 견학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구기자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 보급, 시설재배 현장기술 지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계수확이 쉬운 일시 다수확 신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진도 기후에 맞는 유자, 키위 시설 재배를 비롯해 아열대 과수인 파인애플, 레드향, 바나나, 레몬 등 다양한 유망 과수 시설재배 시험포장을 신규로 조성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